

사설

대불련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생 불교회의 연합체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가 차기회장단을 구성하지 못했다는 소식이다. 대불련은 차기 중앙회장 후보자가 없어 '비상집행위원회'를 구성, 내년 2월 열리는 지방장단 회의에서 차기 회장 선출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회장 후보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대불련 4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불련의 조직과 활동이 지난 90년대부터 점점 침체되고 있다. 지회가 없는 대학도 늘어나고, 설혹 있더라도 활동이 부실하거나, 신입회원이 없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대불련의 침체는 시대적 현상의 반영이랄 수 있다.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해 전체적으로 대학동아리 활동이 위축돼 가고 있으며, 특히 종교동아리들이 위면당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 그동안 불교계가 능

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온 것이 대불련 위축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불교계는 그동안 불상과 법당, 범종 등 하드웨어적 불사에는 엄청난 공을 들이고 신도들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었지만, 인재키우는 불사에는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대불련이 활성화되려면 어린이 법회부터 탄탄해야 한다. 불자어린이들이 중고등부 법회, 중고등학생들이 대불련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대불련 회원이 늘어나고 역량이 강화될 때 근교불교와 직장직능 불자회, 사찰신도회가 활발해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린이 법회조차 없는 사찰이 대부분이다.

이번 대불련의 일을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종단과 사찰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포교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한해를 보내며...

회화와 설렘이 교차하는 때다. 하지만 우리에게 삶은 '그때 만약 이랬더라면...' 따위의 가정이나, '다 잘 될 거야' 하는 식의 근거 없는 전망을 허용치 않는다. 누구도 인과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살아낸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올 한 해 동안 한국 불교계는 참 많은 일들을 해 냈다.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주말 수련 프로그램을 갖추었고, 전례 없는 열광으로 한민족의 저력을 확인한 월드컵 기간 중에는 템플스테이를 통하여 세계인에게 한국 고유의 문화를 알리기도 했다. 이어진 부산 아시안 게임과 부산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에서도 자원봉사를 통한 불자들의 활약은 돋보였다. 또한 북한 산 관통도로를 저지하기 위해 천막 법당을 세우고 끝내 차기 대통령 당선자

로부터 백지화를 이끌어낸 것도 특별히 기억할 만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사회의 흐름과 함께 했다는 점이다. 사회적 문제에 둔감했던 전례에 비추어 보면 커다란 변화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가 불교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며, 불교는 세상의 구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속도와 경쟁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의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적어도 절에서 만큼은 세간의 아귀다툼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폭 쉬면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이익 집단간의 대립이나 자본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지점을 확보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2003년 한국 불교계가 화두로 삼을 일이다.

전통사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조계종, 정보화사업단 설립...내년부터 3년간

조계종이 한국불교정보화사업단을 설립하고 전통사찰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조계종은 17일 종무회의를 열어 '한국불교정보화사업단'(이하 정보화 사업단)을 발족하기로 하는 한편, 내년 1월 하순경 발족식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정보화 사업단 위원장을 맡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도현스님은 "정보화 사업단은 전통사찰

관광문화 인프라·콘텐츠개발 핵심사업

862개사찰 역사·전설·문화재 등 DB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국내 관광문화 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을 핵심사업으로 전개하게 되며, 불교 사찰 및 단체의 IT인프라 구축, 종단 본·말사지

식 정보화 사업지원, 불교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의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전통사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통사찰종합정보시스템이란 전국 862개 전통사찰의 역사와 전설, 건축구조, 소장 문화재 사진(동영상), 전통문화생활, 위치 등의 종합정보를 DB화하고 인터넷 상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해 불교 전통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보 60건, 보물 386건, 천연기념물 14건, 지방문화재 608건, 문화재자료 297건 등 전통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지

정 불교문화재를 비롯해 미지정 문화재 3만 여건도 포함된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이며, 국고 17억2천여만원과 민자(조계종 예산, 기업체, 일반 후원금) 17억3천여만원 등 모두 34억5천7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총무원 기획실장을 단임직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부장관과 포교부장, 동국대 역경원, 고려대장경연구소, 사찰문화연구원 인사들을 포함하는 '불교정보화 정책위원회'와 기획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원 실무자 등 9인의 '사업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금명간 웹마스터, 콘텐츠 개발팀장, 디자이너 등 8명의 사업단 실무팀을 구성해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한명우 기자 mwghan@buddhania.com

봉은사 조사특위 17일 전체회의 개최

24일부터 현장조사 실시

조계종 중앙총회 봉은사 조사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4일부터 15일간 봉은사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특위는 특위 발족과 동시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조사와 서류조사 등 지금까지 세 차례 조사를 벌였으나, 봉은사의 비협조로 실질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위는 또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봉은사에 대한 총무원 자체 감사에 참여했던 실

무자들을 감사기간동안 파견해줄 것을 총무원측에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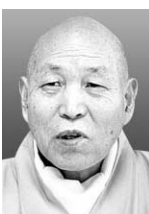
이와 함께 감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봉은사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장 명의로 경고공문을 보내는 한편, 총무부와 종회사무처도 조사협조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그러나 특위는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에 대한 소위원회의 징계 요청에 대해서는 24일부터 시작되는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정일스님 이사장 재추대

선학원, 17일 이사회

(재)선학원(이사장 정일)은 17일 중앙선원 2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내년 1월 3일부로 임기가 만료되는 정일 스님(사진)을 차기 이사장으로 재추대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새 이사장 송산스님(인천 보각사 주지), 대운 스님(양주 지장사 주지), 정수스님



선일 스님

(서울 북악사 주지)을, 감사에 영진스님(서울 법수선원 주지), 보관스님(대전 북전암 주지)을 선임했다. 한명우 기자

교과서 불교왜곡 '백서' 발간

조계종 총무원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이 개편된 교과서

를 분석해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나타난 초·중·고교 불교관련 기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백서>(이하 <백서>)를 발간한다.

12월말 발간 예정인 <백서>는 파라미터청소년연회부설 청소년문화연구소에서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된 '제7차 교육과정 초·중·고 교과서 불교교리 오류 및 종교편향 서술 실태분석' 세미나의 성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관련기사27면) 김두식 기자

조계종 포교원은

군불교 활성화를 위해 신도 배가와 교육 강화, 군승의 효율적 관리·총원 등을 골자로 하는 '군포교 비전21'을 16일 발표했다.

군포교 비전21에 따르면, 조계종은 군불교위원회를 중심으로 군불자들의 양적인 성장은 물론 신도교육 강화, 조직적인

사미승 군승복무 의무화 추진

군법당용 전산프로그램 보급

조계종 포교원, '군포교 비전' 발표

관리를 추진한다. 군포교의 주체인 군법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보완, 사미승 군승 복무 의무화 제도와 비구니 스님의 군승 파견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3월부터 군법당용 전산 운영 프로그램을 보급, 행정체계 통일과 신도관리체계 확립, 투명한 재정운용 등도 실현해 나가는 한편 군포교 지원단체와의 네트워크화와 1사찰 1군법당 자매결연, 군법당 후원회원 모집 등 후원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사찰의 모든것을 한눈에

수행체계 연구·기본교육기관 재정비

조계종 교육원 내년사업

조계종 교육원이 내년부터 수행체계 연구 및 기본교육기관 재정비에 나선다.

교육원은 16일 오후 교육원장실에서 제60차 교육원 회의를 열고 △출가 정책 수립 및 홍보 △기초 교육관리운영강화 △기본교육기관 재정비 추진 △교과목 검인정 교재편찬 및 발간 △승가고시 체계화 및 시행 △교육원 전산화 및 통계화 사업 △3급 승가고시 산립 △본말사주지연수 △선원관리 △수행체계 연구 △조계종사 고종세편 발간 △승가제도 연구 등을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수행체계 연구와 기본교육기관 재정비는 조계종의 수행체계 및 교육체계를 재검토하고

현재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다는 의미를 띠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원은 △교육원 전산화 및 통계화 사업 △출가정책 수립 △제1회 중급지도자 연수 △전통산림 △선사 행정조사연구 △역경 정책연구 등 6가지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한명우 기자

신년포교 전진대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1월 4~5일 대전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신년포교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새해 조계종 포교정책 발표와 신도·포교단체의 사업성과 및 계획, 포부를 밝히는 자리로, 포교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토대 형성 등 포교의 활성화를 위한 교류 및 다짐의 장이 될 전망이다. 박봉영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김규석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n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